수저 계급론이 놓친 천(天)수저

(여호수아 18:1~28)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 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저계급론이 놓친 천(天) 수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수저계급론이 놓친 천(天) 수저'

이제 201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상지어진 말이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에 서울대생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부족하면 자식의 일평생의 삶은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유서를 남기고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2015년 말을 지배하게 되면서, 젊은이들 간에는 이 "수저계급론"과 함께 "헬(hell)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됩니다. '헬 조선'은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에서 대한민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수저계급론'이 어떤 계급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상위 0.1%에 자산 30억 이상 연 수입 3억 이상입니다. 금 수저는 상위 1%에 자산 20억 연 수입 2억 이상입니다. 은수저는 상위 3%에 자산 10억 연 수입 8천만 이상입니다. 동 수저까지도 괜찮은가

본데 상위 7.5%에 자산 2억 이상 연 수입 5천 5백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흙수저는 자산이 5천만 미만이고 연 수입이 2천만입니다. 여기 더해서 플라스틱 수저나 티스푼까지 등장했고, 위로는 플래티넘 수저로 자산이 50억 이상이 되는 집안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성장시대로 들어간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경제형편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내 삶의 경제적인 환경과 조건이 정해진다는 것이 수저계급론이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큰일인가 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40대 재벌의 자산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98.64%가 포함되는데 재벌의존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재벌들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손을 대고 빵집, 택배, 학생 교복 등까지 손을 대면서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98.64%를 차지할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3세대로 넘어가면서 창업자와는 다르게 혁신을 위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인 CES(Com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재벌의 참여도는 3%였고, 미국은 47% 중국은 30%였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2016년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아예 참여도 안한다고 결정을 내렸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최고의 재벌이고 가전 회사인 삼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헬 조선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마6:31~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닌 하늘 숟가락을 입에 물고 사는 천(天)수저 사람들입니다.

살전5: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4: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부르고 수저계급론에 억눌려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성경구절을 읽

어주면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고,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소위 종교의 경전에나 쓰여 있는 것을 더 이상 읊어대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아직 일곱 지파의 땅 분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고, 예루살렘 북쪽 30km 지점의 실로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좁다고 와서 불평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성막을 세우는 일에 집중시키고 나서, 일곱 지파에게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며 빨리 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점령하라고 재촉을 하는데 아직 땅이 분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지파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을 뽑아서 나머지 분배되지 않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적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그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분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가나안 전체의 지적도를 손에 넣고 했어야 하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해 놓고는 성막을 세우고 일곱 지파를 나무라는데 이들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성막 짓는 일에 집중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일곱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정복하러 가야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이 바로 일곱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저계급론에 장악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배 받아 얻게 된 땅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부터 남부까지 가장 넓고 비옥한 부분이었습니다. 일곱 지파가 볼 때에는 이들이 금싸라기 땅을 다 빼간 상태에서 산지와 척박한 땅만 남게 되었고, 당연히 이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더 절망적인 이유는 제비를 뽑았기 때문인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가 배제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눠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제비를 뽑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만으로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 금싸라기 땅을 다 나눠주고, 산지와 척박한 땅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의욕과 열정 자체가 수저계급론에 막혀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일곱 지파도 누구 못지않게 가나안 정복전쟁에 열심히 참여했기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환경적 조건을

결정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과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마가 다스리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넓고 큰 그림에서 섭리를 위해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 쉽게 말해서 내가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의지로서 극복하기 어려워진 헬 조선인 대한민국 사회의 환경적 조건에서 우리 선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일곱 지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일곱 지파의 마음을 읽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중지하고 실로에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7절에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음을 확인시키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의도하는 것은, 일곱 지파를 선민의 본연의 위치로 돌려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갈 성막을 세우는 등의 일들이 가리키는 바는, 진정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하기 위해 가져야 될 참 소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죽은 다음에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져야 될 참 소유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성막 존재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참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그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가든지 산지에 가든지 선민에게 중요한 것은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선민이라면 명동 거리의 가로등이든지,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 세워지든지 가로등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불을 밝히면 되는 것뿐이고, 수도꼭지라면 강남의 아파트에 있든지 산동네에 있든지 수원지에서 보내는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왕 위에 올라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인간적인 뜻을 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방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선민이고 천(天)수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수저계급론으로 치면 예수님은 흙수저도 안 되고 플라스틱 수저도 안 되고 티스푼도 안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예수님

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서, 가로등처럼 불을 밝히고 수도꼭지처럼 물을 흘려보낼 것인가를 신경 쓰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좇던 제자들은 흙수저에서 동수저, 동수저에서 은수저, 은수저에서 금수저가 되기를 지향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저계급론적 헬 조선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억눌리며 사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흙수저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은수저로 가려고 하니 흙수저가 비관적이게 되므로, 우리가 할 일은 흙수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6: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올인 할 만한 다른 원리라도 있습니까? 인생을 흙수저에서 아니면 동수저에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수저로 바꿀 수 있을만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계발서가 나왔습니까? 그 책들이 말하는 내용대로라면 모두가 다 금수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사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도 책들이 말하는 대로 했다면 내 자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오천만 중에 대여섯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인줄 알고서 내놓고 있는데 다 마귀의 장난인 것이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사리 알바를 하며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여! 나머지 인생을 어디에 걸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편없는 알바를 해야만 먹고 사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까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관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라면만 먹고서 살 각오를 하더라도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일곱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를 베냐민 지파로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눈에 보이는 삶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삶’을 상징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선민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고, 먹을 끼니가 없어도 십자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죽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끼니 없는 삶의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실현해 나갈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시든 죽어버립니다.
순교자들처럼 누가 날 죽여서만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만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헬 조선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헬 조선에서 살아가는 비법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천(天)수저를 입에 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적 조건은 흙수저만도 못한 플라스틱 수저 아니면 티스푼 정도였을까요? 그래도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저계급론이 지배하는 헬 조선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는 이 말을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天)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들로 선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택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에 올인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